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4.2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2025 발표 5월 초로 연기(4.17)

- 집행위원회는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4월 25일로 연기, 문서는 5월 초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
- 최근 성평등계획(GEP) 요건 변경에 대한 논의로 인해 절차가 더욱 지연됨
- 이에 주요 대학 관계자들은 준비 시간 부족 및 겹치는 마감일로 인한 연구자 및 연구 지원 부서의 부담 가중에 우려를 표함

○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, 독립적인 FP10 촉구(4.22)

- 영국, 스위스 및 뉴질랜드는 집행위에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인 FP10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
 - ※ EU 회원국, 대학, 연구기관은 현재 집행위가 FP10을 혁신, 성장, 기술 자율성에 중점을 둔 더 광범위한 ‘경쟁력 기금’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 우려하고 있음
- 세 국가는 현재 운영중인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약 30%를 준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, FP10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준회원국들이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
- 서한은 “명확하게 정의되고 투명한 예산을 갖춘 독립적인 FP10은 국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담 재정 지원을 정당화하고 확보하며, 공공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수”라며 명확한 예산 책정을 촉구

○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 고위급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개최(4.29 예정)

- 이해관계자 원탁회의에서는 한국과 EU의 엄선된 정부 행정부, 산업 협회, 전문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협력의 전략적 분야*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
- * 인공지능 거버넌스,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, 양자 연구혁신, 사이버보안 및 위협 정보 공유, 5G/6G 및 디지털 연결, 데이터 거버넌스 및 신뢰 기반 데이터 자유 흐름, 디지털 인프라 및 경제 안보, R&D 협력, 디지털 기술 및 인력 개발 등
- 동 회의는 서울에 있는 주한EU대표부에서 진행되며, Webex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음 (※4월 29일 한국시간 16:00~19:00)